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11개 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께 세 번씩이나 묻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에게 두 번이나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에 그토록 패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 이스라엘 연합군의 실패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싸워 실패한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의 숫자가 아무리 많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싸운 장소는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 지역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는 물매 돌을 던지는 일에 명수인 왼손잡이 용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6절,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칠백 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에 반해, 이스라엘 연합군은 세번째 공격이 있기 전까지 특별한 작전이나 준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기브아 주변에 연합군의 일부 군사들이 미리 매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29절,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둘째로, 이스라엘 11개 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이방민족 대하듯이 했습니다. 사실 이 싸움의 원인은 베냐민 지파 전체의 죄 때문이 아니라 기브아 지역에 있는 불량배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냐민 지파 전체를 벌할 것이 아니라 불량배들만 찾아내어 그들의 죄를 벌해야 옳았을 것입니다. 과거에 여호수아도 지도자로 있을 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아간이 속한 유다 지파 전체를 벌한 것이 아니라 아간과 그의 가족들의 죄만 처벌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아간을 가리켜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스스로 죄를 실तो하도록 타일렀습니다(**수 7:19,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그러나 이스라엘 11개 지파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베냐민 지파에 대한 징계만을 결정했지 형제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11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 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셋째로, 이스라엘 11개 지파는 그들이 먼저 결정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하나님께 물었던 첫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벤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주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사실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있어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 지에 대한 질문은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에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질문보다 그들이 먼저 했어야 하는 질문은 ‘전쟁의 유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를 처벌할 권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연합군은 첫번째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 후,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제서야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질문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 하나님께 물음

이스라엘 연합군은 두번째 전투에서도 패배하고 결국 여호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11개 지파는 울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 연합군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서 비느하스를 만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됩니다(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 주리라 하시니라.”). 이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그들이 승리할 것에 대한 확답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의 실패를 통해 이스라엘 연합군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이전 여호수아 시대와 다윗의 경우도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 때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전투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자격, 즉 그 인도를 받은 바른 위치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삼하 8:14하-15,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새”). 우리도 삶의 많은 결정과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친밀한 관계로 살지 않다가 갑자기 점을 치듯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연합군과 같이, 이미 내가 모든 일을 다 결정해놓고 마치 그 뜻을 관철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영적인 우선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로서 기도와 행동이 따로 분리된 삶을 살아서도 안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2. 한국을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백신이 아직 공급되지 않고 있는데 하루 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교육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부 목사님들과 청년부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정후란시스 선교사님과 가정의 건강 그리고 사역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